영아기 어머니의 관계적 변인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구조분석

윤 영 미¹ · 여 정 희²

대동대학교 간호학과¹, 동아대학교 간호학과²

= Abstract =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Infancy Mothers' Relational Variables and Parenting Stress

Young-Mee Yoon¹ · Jung Hee Yeo²

Department of Nursing, Dae-Dong College¹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²

Purpose: This study examined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mothers' relational variables such as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conflict, husbands' parental involvement, and maternal identity.

Methods: A nine-pathway hypothetical model was developed based on literature reviews. Two exogenous variables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conflict) and three endogenous variables (husbands' parental involvement, maternal identity,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were included in this model. Participants were 170 mothers of 5~7 month old children who visited the Public Health Center to be vaccinated between January 19 and March 27, 2015.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PASW/WIN 22.0 and AMOS 22.0.

Results: The model fit indices for the modified model were suitable for the recommended level. Among mothers' relational variables, maternal identity, marital conflict, and husbands' parental involvement directly influenced mothers' parenting stress. Marital satisfaction did not have a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n mothers' parenting stress, however, it directly affected maternal identity and husbands' parental involvement. These predictive variable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explained 56.0% of the model.

Conclusion: This study expanded the understanding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can be used to develop effective interventions to decrease stress.

Key Words: parenting stress,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conflict, husbands' parental involvement, maternal identity

*본 연구는 2016학년도 동아대학교 교내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교신저자: 여정희, 부산시 서구 대신공원로 32,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 의과대학 간호학과

전화번호: 051-240-2784, 팩스번호: 051-240-2920, E-mail: jheeyeo@dau.ac.kr

원고접수: 2016년 3월 29일, 원고심사: 2016년 4월 12일, 원고채택: 2016년 4월 18일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출산, 육아기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정상적인 생의 변화와 부모라는 사회적 위치에 서게 되면서 다양한 역할부담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낮다(Kim, 2015). 특히 초산모의 경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목욕, 수유, 옷 입히기 등과 같은 신체적인 돌봄을 적절하게 수행해야 하는 등의 신체적 부담과(Kwon, 2008), 새로 태어난 아기와 정서적 관계를 확립하고, 어머니가 되기 이전에 수행해 왔던 일련의 역할과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통합해야 하는 등의 심리적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Kim et al., 2005), 이는 이 시기 어머니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Chae et al., 1999).

이러한 자녀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민감성을 떨어뜨리고, 영아를 권위주의적으로 양육하게 함으로써 영아의 반항적인 행동을 증가시켜 사회적 발달의 저해를 가져오며(Crnic & Greenberg, 1990),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을 증가시키고(Seo et al., 2003), 저출산을 유도하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진다(Kim, 2015).

따라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각도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idin (1990)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과 양육 대상인 자녀특성과 가정환경 특성 등의 3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 가정환경 특성은 양육스트레스가 결혼 후 자녀의 출산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어머니를 중심으로 남편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기대와 불일치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Lim et al., 2015),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간호학 분야에서 보고된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은 출산 후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이나, 사회적 지지, 자녀의 기질 등이었고(Lee & Kwon, 2014)

가정의 양육환경을 구성하는 부부간의 관계적 변인에 초점을 둔 통합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 중 가정의 양육환경을 구성하는 부부간에 관계적 변인은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 남편의 양육참여, 모성정체감을 들 수 있다.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은 결혼 후 가정의 양육환경을 구성하는데 기본적인 요소로(Crnic & Greenberg, 1990), 사회적 지지보다 양육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Mulsow et al., 2002; Kim, 2012), 영아기의 부모의 기능에 가장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Ahn, 2011). 또한 결혼만족도가 높고, 부부갈등이 적을수록 배우자는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Minuchin, 1985),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여 부모 역할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원동력이 된다(Belsky & Pensky, 1988). 그리고 가정 내 남편은 양육환경을 구성하는 주요인이다(Lee, 2003). 남편의 양육에 대한 참여는 어머니에게 여유를 갖게 하고,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켜 자녀에게 온화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어(Kim & Choi, 2007)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한다(Abidin, 1990; Crnic, & Greenberg, 1990; Lee, 2003). 또한 모성정체감은 스스로 어머니임을 인정하고 어머니로서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여 자녀의 요구에 따라 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Mercer, 2004),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특히 남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형성되는데(White et al., 1999), 모성정체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할 것으로 본다(Oh, 2001; Seo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가정 내 양육환경을 이루는 어머니의 관계적 변인인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 남편의 양육참여, 모성정체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직, 간접효과를 확인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양육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간호중재 방안의 기틀을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영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 남편의 양육참여, 모성정체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 남편의 양육참여, 모성정체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알아본다.

둘째,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모성정체감과 남편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알아본다.

셋째,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모성정체감과 남편의 양육참여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알아본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개념적 기틀 및 가설적 모형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정 내 양육환경을 구성하는 어머니의 관계적 변인인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 남편의 양육참여, 모성정체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개념틀을 도출하였다.

즉, 결혼만족도(Mulsow et al., 2002)와 부부갈등(Ahn, 2011), 남편의 양육참여(Abidin, 1990; Crnic & Greenberg, 1990; Lee, 2003), 모성정체감(Oh, 2001; Seo et al., 2003)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은 모성정체감(Belsky & Pensky, 1988)과 남편의 양육참여(Minuchin, 1985)에 영향을 미쳤으며, 남편의 양육참여는 모성정체감에 영향을 미쳤다(White et al., 1999; Kim & Choi, 2007). 따라서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은 외생변인, 모성정체감과 남편의 양육참여는 매개변인, 최종내생변인은 양육스트레스로 선정하여 가설적 모형을 만들었다(Fig. 1).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직·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Fig. 1. Conceptual framework and hypothetical model. Abbreviations: X1, Marital satisfaction1; X2, Marital satisfaction2; X3, Marital conflict1; X4, Marital conflict2; X5, Marital conflict3; X6, Maternal identity1; X7, Maternal identity2; X8, Maternal identity3; X9, Husbands' parental involvement1; X10, Husbands' parental involvement2; X11, Mothers' parenting stress1; X12, Mothers' parenting stress2; X13, Mothers' parenting stress3.

구조모형검증 연구이다.

3.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자녀의 예방접종을 위해 B시 1곳의 보건소와 2곳의 병원을 방문한 어머니 중 연구목적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5~7개월 된 영아를 둔 초산모이다. 대상자의 자녀 월령을 5~7개월로 선택한 이유는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감이나 자율성이 획득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며, 본 연구의 외생변인이 아이의 월령(성장속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녀의 월령 범위를 2개월로 제한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편의표출이었으며, 대상자수는 가설적 모형의 관측변수 당 10~20배(Moon, 2010)에 근거하여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분석 불가능한 응답자 10명을 제외하고 최종 17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 연구 도구

1)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의 측정은 Abidin (1990)의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을 기초로 Kim과 Kang (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의 12문항 중 신뢰도가 낮은 두 문항을 제외하여 총 10문항을 이용하였다. 이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차원의 척도로 확인되어 문항 꾸러미화(Moon, 2010)를 통해 무작위로 3개의 꾸러미로 나누어 3개의 측정변인을 설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이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총점은 10점에서 50점이고, 점수가 높으면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Kang (1997)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7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3$ 이었다.

2) 모성정체감

모성정체감의 측정은 Koh (1995)가 번역한 Osgood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차원의 척도로 확인되어 문항 꾸러미화(Moon, 2010)를 통해 무작위로 3개의 꾸러미로 나누어 3개의 측정변인을 설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1문항이며, Likert식 7점 척도로 이루어져 총점은 11점에서 77점이고, 점수가 높으면 어머니로서의 모성정체감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Koh (1995)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1$ 이었다.

3) 남편의 양육참여

남편의 양육참여 측정은 Ahn (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차원의 척도로 확인되어 문항 꾸러미화(Moon, 2010)를 통해 무작위로 2개의 꾸러미로 나누어 2개의 측정변인을 설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4문항이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총점은 4점에서 20점이고, 점수가 높으면 남편의 양육참여가 높음을 의미한다. Ahn (2011)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7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2$ 이었다.

4)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의 측정은 Schumm의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KMSS)를 Chung (2004a)이 우리문화에 맞게 수정한 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RKMS)을 사용하였다. 이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차원의 척도로 확인되어 문항 꾸러미화(Moon, 2010)를 통해 무작위로 2개의 꾸러미로 나누어 2개의 측정변인을 설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4문항이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총점은 4점에서 20점이고, 점수가 높으면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hung (2004a)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0$ 이었다.

5) 부부갈등

부부갈등의 측정은 Markman 등이 개발한 척도를 Chung (2004b)이 수정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차원의 척도로 확인되어 문항 꾸러미화(Moon, 2010)를 통해 무작위로 3개의 꾸러미로 나누어 3개의 측정변인을 설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8문항이며, Likert식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총 점은 8점에서 32점이고, 점수가 높으면 부부 간의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Chung (2004b)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2$ 이었다.

5.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D기관 연구윤리심의위원회(2-1040709-AB-N-01-201501-HR-001-02)의 승인을 받았다. 자료수집 전, 연구자는 보건소의 건강증진 담당자 및 병원 간호부서장으로부터 연구 자료 수집에 대한 허락을 얻었다. 자료 수집은 자녀의 예방접종을 위한 방문 시 연구 참여에 의사를 표명한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은 후, 조사자가 일대일 면담을 통한 설문조사로 실시하였다. 조사자는 연구자와 연구 보조원 1인 이었으며, 연구자는 조사방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연구보조원에게 설문내용과 조사방법을 교육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로 설문 응답에 대한 답례로 감사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6. 자료분석 방법

연구목적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PASW 22.0과 AMO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측정변인은 서술통계로 분석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으로,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구조모형의 기본가정인 정규성 검증은 왜도와 첨도

로 검토하였으며, 요인별 변별타당도와 수렴타당도 검증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조모형 검증은 최대우도추정법을 이용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간접 경로의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였다.

성 적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30~34세가 43.5%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 중 대졸 이상이 52.9%이었고, 비취업모는 53.5%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51.2%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대상자의 가구 총수입은 300~500만원이 47.1%, 500만원 이상이 33.5% 순이었고, 90.6%가 핵가족이었다. 대상자의 임신 횟수는 1회가 63.5%, 2회 이상이 36.5% 순이었으며, 대상자의 70.0%는 정상 분만이었으며, 그 나머지는 제왕절개 분만을 하였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7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ear)	≤29	47 (27.6)
	30~34	74 (43.5)
	≥35	49 (28.8)
Education level	≤High school	80 (47.1)
	≥Junior college	90 (52.9)
Occupation	Yes	79 (46.5)
	No	91 (53.5)
Religion	Yes	87 (51.2)
	No	83 (48.8)
Monthly income (10,000 won)	<300	33 (19.4)
	300~500	80 (47.1)
	>500	57 (33.5)
Residence status	With parents	16 (9.4)
	Apart from parents	154 (90.6)
Number of pregnancy	1	108 (63.5)
	≥2	62
Delivery type	Vagina	119 (70.0)
	Cesarean section	51 (30.0)

2.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통계치

측정변인들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추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의 각 측정변인에 대한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측정변인별 모두 왜도의 절대값이 3 이하, 첨도의 절대값은 10 이하로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변인 간의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모두 .85 이하로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3.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변별타당도와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변별타당도는 각 요인이 독립적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잠재변인 간의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80 미만이면 만족된다(Moon, 2010). 본 연

구에서 나타난 잠재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05~.68로 변별타당도를 만족시켰다. 또한 수렴타당도는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측정변인별 부하량이 .50 이상이면 만족된다(Moon, 2010). 이에 본 연구의 부하량은 .70~.94로 수렴타당도를 만족하였다.

따라서 가설적 모형 하의 모든 잠재변인들이 측정모형을 통해 통계적으로 정확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4. 가설적 모형의 검증과 수정

1)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추정과 분석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χ^2 는 117.87 ($p<.001$)로 기본모델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 는 표본 크기와 측정변인의 수에 민감하기 때

Table 2. Correlation Matrix and Descriptive Statistics for Measurement Variables

(N=170)

Measurement variables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	1												
X2	.81 [†]	1											
X3	-.55 [†]	-.41 [†]	1										
X4	-.64 [†]	-.51 [†]	.80 [†]	1									
X5	-.54 [†]	-.44 [†]	.68 [†]	.78 [†]	1								
X6	.20 [†]	.22 [†]	-.09	-.24 [†]	-.25 [†]	1							
X7	.39 [†]	.38 [†]	-.18*	-.32 [†]	-.30 [†]	.61 [†]	1						
X8	.17*	.11	-.03	-.10	-.15	.62 [†]	.52 [†]	1					
X9	.32 [†]	.38 [†]	-.24 [†]	-.31 [†]	-.16*	.17*	.25 [†]	.22 [†]	1				
X10	.43 [†]	.54 [†]	-.28 [†]	-.31 [†]	-.23 [†]	.08	.18*	.07	.61 [†]	1			
X11	-.27 [†]	-.21 [†]	.18*	.31 [†]	.24 [†]	-.46 [†]	-.52 [†]	-.38 [†]	.10	.02	1		
X12	-.23 [†]	-.21 [†]	.18*	.33 [†]	.25 [†]	-.38 [†]	-.42 [†]	-.26 [†]	-.05	.02	.60 [†]	1	
X13	-.26 [†]	-.16*	.21 [†]	.27 [†]	.32 [†]	-.31 [†]	-.37 [†]	-.26 [†]	.12	.13	.49 [†]	.60 [†]	1
Mean	3.69	3.72	2.01	1.96	2.27	4.47	4.72	4.34	3.49	3.76	2.46	2.46	2.80
SD	.80	.80	.82	.79	.88	.74	.86	.92	.91	.99	.69	.69	.68
Skewness	-.39	-.51	.63	.80	.48	.95	.62	.19	-.24	-.59	-.11	.44	.16
Kurtosis	.09	.41	.26	.82	.12	1.04	-.22	.15	-.40	-.20	.07	.86	.64

* $p<.05$, [†] $p<.001$.

Abbreviations: X1, Marital satisfaction1; X2, Marital satisfaction2; X3, Marital conflict1; X4, Marital conflict2; X5, Marital conflict3; X6, Maternal identity1; X7, Maternal identity2; X8, Maternal identity3; X9, Husbands' parental involvement1; X10, Husbands' parental involvement2; X11, Mothers' parenting stress1; X12, Mothers' parenting stress2; X13, Mothers' parenting stress3; SD, Standard deviation.

문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므로 모델 적합도의 평가는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적합도는 CMIN/DF (NC)=2.14, GFI=.91, NFI=.91, TLI=.93, CFI=.95로 적합도 기준의 권장기준을 만족하였다. 그러나 RMSEA는 평균 .08로 양호한 기준(Moon, 2010)인 .05~.08의 경계선 수준이었다. 또한 잠재변인들 간의 직접효과에 대한 9개의 경로 중 5개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부갈등에서 남편의 양육참여($p=.823$), 부부갈등에서 모성정체감($p=.401$), 남편의 양육참여에서 모성정체감($p=.968$), 결혼만족도에서 양육스트레스($p=.295$)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적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유의한 경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간명성의 저하로 적합도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Moon, 2010) 유의성이 없는 경로는 단계적으로 제거하였고, 동시에 수정지수를 고려하여 적합도 중 표본크기와 지표변인의 수에 영향 받지 않는 RMSEA이 양호한 기준에 만족하는 수정모형을 설정하였다. 수정모형의 다른 적합도지수도 가설적 모형보다 좋은 수준이었다(Table 3).

2) 수정모형의 분석

수정모형에서 설정된 경로는 모두 유의하였으며, 모성정체감($p<.001$)과 남편의 양육참여($p<.001$), 부부갈등($p<.001$)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결혼만족도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204$). 또한 결혼만족도는 모성정체감($p<.001$)과 남편의 양육참여($p<.001$)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 효과를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는 모성정체감($\beta=-.65$, $p<.001$)과 남편의 양육참여($\beta=.32$, $p<.001$), 부부갈등($\beta=.31$, $p<.001$)의 직접적인 효과에 의해 56% 설명되었다.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은 모성정체감($\beta=-.65$)이었으며, 그 다음은 남편의 양육참여($\beta=.32$)와 부부갈등($\beta=.3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성정체감은 결혼만족도($\beta=.45$, $p<.001$)에 의해 20% 설명되었으며, 남편의 양육참여도 결혼만족도($\beta=.56$, $p<.001$)에 의해 32% 설명되었다(Table 4).

고 찰

본 연구는 영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 모성정체감, 남편의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특히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대다수의 연구들이 출산 후 발생하는 여성의 심리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양육환경을 구성하는 어머니의 관계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양육스트레스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적 변인이 어떠한 경로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설정하였고, 이들 결과의 직, 간접효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 구조모형에서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성정체감과 남편의 양육참여, 부부갈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양육스트레스와 모성정체감의 직접적인 경로는 산후 4주된 아이를 가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성정체감

Table 3. Model Fitness Indexes of Hypothetical Model and Modified Model

Model	χ^2 (p)	df	NC	SRMR	GFI	NFI	TLI	CFI	RMSEA
Hypothetical	117.86 (<.001)	55	2.14	.06	.91	.91	.93	.95	.08
Modified	105.86 (<.001)	58	1.83	.05	.92	.92	.95	.96	.07

Abbreviations: df, Degree of freedom; NC, Normed chisquare; S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d residual; GFI, Goodness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 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able 4. Direct and Indirect Effects for Mothers' Parenting Stress in Modified Model

(N=170)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β	SE	SMC	Standardized direct effects (p)	Standardized indirect effects (p)	Standardized total effects (p)
Mothers' parenting stress				.56			
	Maternal identity	-.65	0.11		-.65 (<.001)		-.65 (<.001)
	Husbands' parental involvement	.32	0.06		.32 (<.001)		.32 (<.001)
	Marital conflict	.31	0.06		.31 (<.001)		.31 (<.001)
	Marital satisfaction	-.11	0.09			-.11 (.204)	-.11 (.204)
Maternal identity				.20			
	Marital satisfaction	.45	0.07		.45 (<.001)		.45 (<.001)
Husbands' parental involvement				.32			
	Marital satisfaction	.56	0.10		.56 (<.001)		.56 (<.001)

Abbreviations: β ,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SE, Standard error;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Fig. 2. Path diagram for modified model. Abbreviations: X1, Marital satisfaction1; X2, Marital satisfaction2; X3, Marital conflict1; X4, Marital conflict2; X5, Marital conflict3; X6, Maternal identity1; X7, Maternal identity2; X8, Maternal identity3; X9, Husbands' parental involvement1; X10, Husbands' parental involvement2; X11, Mothers' parenting stress1; X12, Mothers' parenting stress2; X13, Mothers' parenting stress3.

은 어머니 수행 자신감을 향상시킨다는 Oh (2001)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설정되었으나, 본 연구결과에서 모성정체감이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모성정체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모성역할

의 정체성 형성에 기저를 이루는 자아존중감(Lucas, 2010)이 크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결과(Lim et al., 2015)와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즉,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녀양육을 수행하는데 얼마의 노력을 들일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심리적 저항을

느끼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모성정체감과 관련된 것으로(Suh & Kim, 2012), 모성정체감이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적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는 모성정체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간호사는 모성정체감을 향상을 위해 임신기부터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이용해 태아를 수용하도록 하고, 모성역할의 자신감을 증가시키기 위해 모유수유와 양육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성정체감은 남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므로 부부간의 친밀도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도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양육 참여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았는데, 남편 양육의 참여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짐을 보고한 선행연구(Lee, 2003; Kalil et al., 2005; Lim et al., 2015)와 상반되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다. 첫째는 대상자의 차이이다. 즉 본 연구는 5~7개월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반면, 선행연구는 2~6세의 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1세 미만의 자녀는 기본적인 욕구 해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과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며, 양육은 주로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진다(Park, 2005). 이 시기의 남편은 아이에 대해 관심이 많아 양육에 참여하지만 양육기술이 서툴러 어머니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아기는 기본적인 욕구에 초점을 둔 관리보다는 신체 활동량의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의 감독과, 놀이를 통한 자아발달과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키는 관리가 요구되므로, 남편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연령에 민감하므로 추후연구에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남편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직접적인 경로보다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가 더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추후연구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편의 양육참여는 과거와 달리 핵가족이 주를 이루는 현대사회에서 가정 내에서 거의 유일한 도움의 자원으로(Ahn, 2011),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하

다 하더라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2014년 시행된 자녀양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연구결과(Lee & Kwon, 2014)에서도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보고하였고,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기를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남편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양의 관계는 선행연구와 상이한 결과이었으나 향후 양육스트레스를 위한 간호중재 개발 시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은 양육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영향요인이었다. 이는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결과(Ahn, 2011; Suh & Kim, 2012; Lim et al., 2015)와 동일하였다. 부부갈등은 서로 다른 인격체가 결혼생활을 함께 하면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자녀 출산 후 증가된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표현하도록 교육하며, 출산과 관련되어 유발된 부부간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중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는 모성정체감이나 남편의 양육참여를 통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는 없었다. 본 연구와 다르게 결혼만족도가 우울을 통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 연구가 있었다(Seo & Lee, 2013). 또한 결혼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간의 관련성은 본 연구에서는 없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상반된 결과도 있어 일관성이 없었다(Mulsow, 2002; Ahn, 2011; Lim et al., 2015). 따라서 향후 결혼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직, 간접적인 효과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는 모성정체감과 남편의 양육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어머니가 결혼 생활에 만족할수록 자신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어머니의 입장에서 남편이 자녀의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 후 발생하는 부부간의 관계의 질은 어머니와 자녀 간의 관계와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Belsky & Pensky, 1988; Lee, 2003)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양육스트레스는 부부 간의 갈등을 없애고, 모성정체감을 높이면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편, 남편의 양육참여는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 간에 매개변인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결과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직, 간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반복연구도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구조모형 분석으로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요인 중 가정 내 심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어머니의 관계적 요인을 중심으로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직, 간접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가설적 모형을 설정한 후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성정체감과 부부갈등, 남편의 양육참여는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결혼만족도는 양육스트레스에 직·간접적인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결혼만족도는 모성정체감과 남편의 양육참여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부부간의 관계와 관련된 측면을 설명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더불어 양육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간호중재 개발 시 모성정체감 향상과 부부갈등의 완화에 초점을 두는 등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참고문헌

Abidin RR. Parenting stress index manual. Pediatric psychology press, Charlottesville, 1990
Ahn JJ. The effect of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

men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in early years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011;35:127-158
Belsky J, Pensky E.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Marriage and Family Review 1988;12:133-156
Chae SM, Kang HS, Lee HJ, Shin HJ. The effects of spousal support on the parenting stress and quality of life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999;3:187-195
Chung HS.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2004a;95:1015-1022
Chung HS. A basic study for developing the marriage preparation program.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04b;22:91-101
Crnic KA, Greenberg MT.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1990;61:1628-1637
Kalil A, Ziol-Guest KM, Coley RL. Perception of father involvement patterns in teenage-mother families: predictors and links to mother's psychological adjustment. Family Relations 2005;54:197-211
Kim HS, Oh KS, Shin YH, Kim TI, Yoo HN, Sim MK, et al.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stress in primipara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2005;11:290-300
Kim JH. A path analysis of social support, marital conflict, self-efficacy,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i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of infants. Journal of Academia-Industrial Technology 2012;13:3924-3933
Kim JK. Infant parents' marital satisfaction and their family environment-focused on employment status.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5;11:63-79
Kim KH, Kang HK.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1997;35:141-150
Kim SY, Choi HY. Mothers'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s, and thei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by their children's emotionality and their husbands' support on parenting.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07;45:1-11
Koh HJ.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strain and

- identity in first-time mothers with regard to employment status. Unpublished master's thesis of Ewha Womans University, 1995
- Kwon KS. A qualit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ing and difficulties of an inexperienced mother who nurtures an infant.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8;13:229–255
- Lee DW, Kwon IS. An analysis of nursing research on child rearing in Korea.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4;20:264–274
- Lee JS.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and mothers' child rearing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3;23:5–19
- Lim HJ, Park HY, Jahng KE, Lee JE.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and relationship variables, parenting stress, and intention for the second childbirth.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5; 20:297–318
- Lucas FW. Pregnant women of mexican descent: constructions of motherhood. *Social Work in Health Care* 2010;49:946–962
- Mercer RT. Becoming a mother versus maternal role attainment.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004; 36:226–232
- Minuchin P. Families and individual development: provocations from the field of family therapy. *Child Development* 1985;56:289–302
- Moon SB.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akjisa, Seoul, 2010
- Mulsow M, Caldera YM, Pursley M, Reifman A, Huston AC. Multilevel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2002;64:944–956
- Oh HY. The relationship among maternal identity, role attainment and postpartum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001;5:255–266
- Park YA. Exploration of variables related to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infants and young children. *Journal of Young Child Studies* 2005;8:97–113
- Seo MJ, Chang EJ, Jung CH, Chei SY. The study of the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d parenting efficacy on the mother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03;8:69–81
- Seo SW, Lee DK. The effects of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couple conflict infants emotional temperamen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3; 33:279–298
- Suh JH, Kim JK. Th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infancy maternal parenting stres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2;73:101–121
- White MA, Wilson ME, Elander G, Persson B. The swedish family: transition to parenthood.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1999;13:171–176